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목적: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정책동향 및 우수사례 분석
2. 출장지역: 일본 동경 및 우쓰노미야 지역
3. 출장기간: 2008년 1월 28일~30일 (3일)
4.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농촌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마상진

5. 출장일정

일 시	장 소	방문 기관 등
1월 28일	서울→ 동경	오전 9시 20분 출발 -> 11시 25분 (HANEDA)
	동경	일본 농림수산성 방문(15시경)
1월 29일	우쓰노미야	우쓰노미야 대학 방문
1월 30일	동경→ 서울	HANEDA -> 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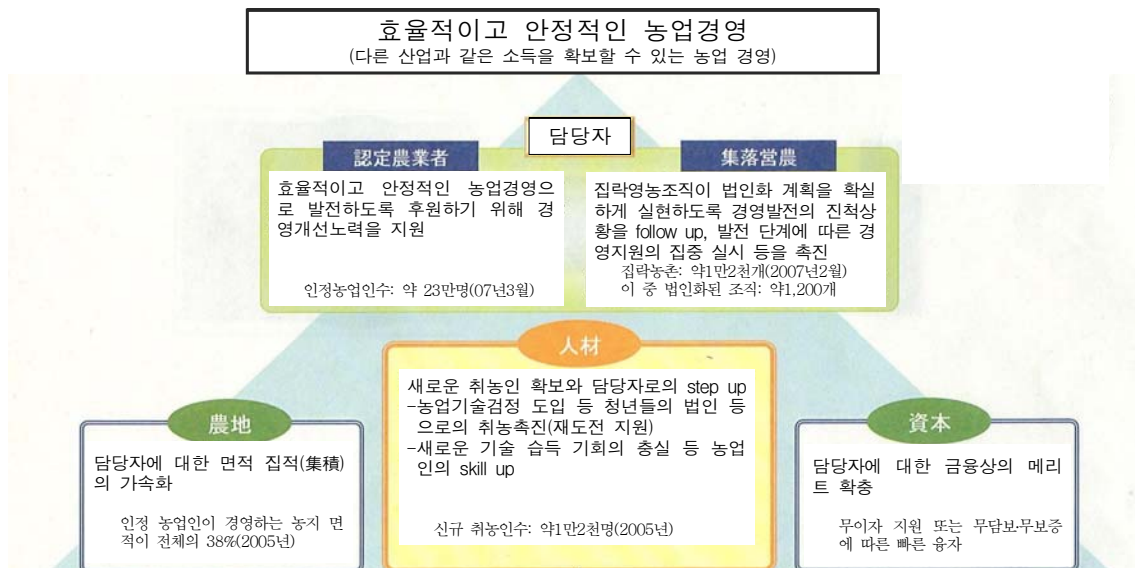
6.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일본 농림수산성 보급·여성과	과장 보좌	Takayasu Kitajima	takayasu_kitajima@nm.maff.go.jp
	과장 보좌	Mahito Kuwana	mahito_kuwana@nm.maff.go.jp
	법인취농 계장	Yutaka Ohyama	yutaka_ohyama@nm.maff.go.jp
우쓰노미야 대학	부총장	Tadatake Mizumoto	mizut@cc.utsunomiya-u.ac.jp
	교수	Yoshito Tsuya	tsuya@cc.utsunomiya-u.ac.jp

II. 주요 출장 결과

1. 일본 농업인력 정책의 목표

- 일본 농림수산성은 다른 산업과 같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이를 구성하고 있는 인력, 농지, 자금 등의 경영의 각 요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인력에 관해서는 담당자인 농업경영자의 육성·확보를 추진함과 함께 농가 출신의 농업종사자의 감소, 농업법인이나 서비스사업체의 증가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고용노동력도 감안하여 새로운 취농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농업교육의 체계

2.1. 학교교육

- 소학교에서의 농업교육
 - 고학년(4~6학년) 단계에서 「사회과」를 통해 농업관련 내용이 교육되어짐. 농업이 지역산업의 중심인 지역에서는(예: 후쿠시마현의 키타카타시)에서는 “농업과”를 개설하여 교육함.
 - 교과외 시간의 농업관련 체험활동 (예: 어린이 Farm Net)

○ 중학교에서의 농업교육

- 「기술가정」, 「사회」에서 농업관련 내용이 교육되어짐.
- 교과외 시간의 농업관련 체험활동

○ 고등학교에서의 농업교육

- 전국의 355개 농업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최근 종합고등학교로 많은 학교들이 전환하고 있는 추세)
- 농업관련 전문교과를 통해 농업의 기초·기본에 대한 학습을 함.
- 농업관련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농업관련 지식과 기술을 익힘
- 일부 “녹색학원(緑の學院)”이란 이름으로 지역의 농업대학교에서 체험 입학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농가에서의 “농업취업체험”을 실시

○ 대학단계에서의 농업교육

- (독립행정법인)농업자대학교: 농림수산성에서 직접 지원하는 2년제 소수의 농업 리더 양성기관
- 농업대학교(농림수산성 및 도부현에서 지원): 각 도부현의 농업시설과 우수 농업교사들을 공동이용하며, 동시에 현장 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70년도 부터 설립된 2년제 농업교육기관으로 도부현에 한개씩 40개가 있음(보급지도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농업교사가 교수로 활약)
- 농과대학(문무성에서 지원): 농업관련 분야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 기관으로 86개교가 있고, 영농에 관심있는 사람은 농업법인에서 인턴십을 이수함.

農業者大學校

○연혁

- 1968년: 농업자 육성을 위한 유일한 국립 교육기관으로서 도쿄도 타마시에 농림성이 설립.
- 2001년: 독립 행정법인에 이행
- 2006년: 독립 행정법인 농업·식품 산업기술 종합 연구 기구의 내부 조직됨.
- 2008년 4월: 농업 관계의 시험 연구의 거점인 이바라키현 츠클마시(농림 연구단지내)에 이전

○ 교육 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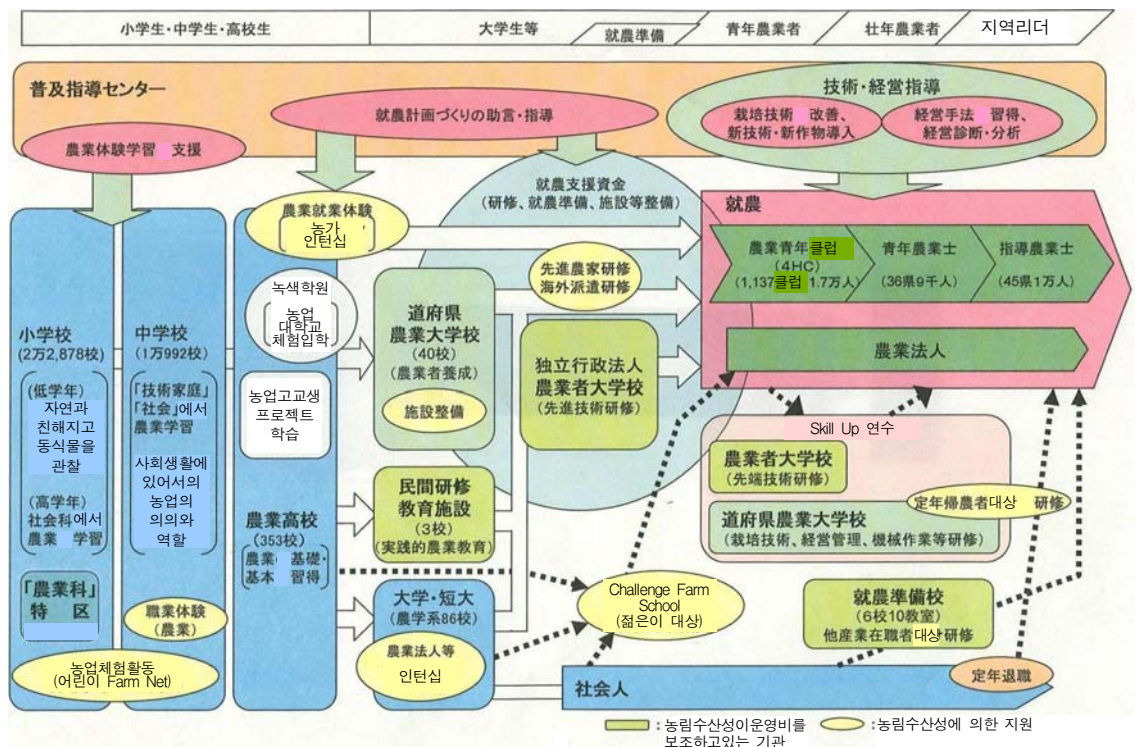
- ① 자기 변혁하는 농업 경영자로서의 기초력의 양성
- ② 세계적 시야에서 생각해 지역에서 행동하는 농업자의 육성
- ③ 인간 교육

○ 교육의 특색: 나라의 기관이 운영하는 학교만이 가능한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

- 농업 경영자로서의 기초력의 양성과 풍부한 인간 형성에 필요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을 체계적으로 교수 해, 폭넓은 시야와 이해력을 함양
- 강의는, 각 분야의 일류의 외부 강사(대학교수, 선진적 농업 경영자, 연구자, 각계의 opinion leader등)에 의해, 높은 수준의 교수 내용을 확보
- 애그리 비즈니스 (agribusiness), 밥의 안전, 환경보전형 농업, 농촌 지역 매니지먼트 등 농업경영자가 직면하는 오늘날적 과제를 단면으로 한 교과를 설정
- 농업 경영자에게 필요한 능력이나 농촌 리더로서 필요한 지도력을 습득시키기 (위해)때문에, 연습이나 실습을 중시
- 전국의 선진적인 농업 법인, 농업 경영자의 아래에서의 4개월간의 파견 실습에 의해, 농업의 현장에서 농업기술이나 경영을 실천적으로 습득
- 농업 연구기관과 Joint 한 첨단기술의 교육이나, 연구소에서의 파견 실습도 실시
- 장래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선진적 농업자나 연구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 1학년 40명의 소인원수 교육
-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재학중부터 장래에 걸쳐 취농·영농을 서포트
- 비농가출신자 등, 농업에 관계가 없었던 사람에게도 확실한 취농에의 조언

○ 입학생 구성

-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졸업 정도의 학력이나 이에 준하는 농업기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대학 농학부의 학생 도부현 농업 대학교의 양성 과정이나 연구과정의 학생 대학 농학부 이외의 학생, 농업계 단기 대학이나 별과의 학생, 사회인, 농업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 하지만 학력·학부는 불문함.
- 40세 미만



2.2. 사회교육

○ 보급지도센터에서의 농업교육

- 현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 초등학교, 중학교의 농업체험학습 지원
- 신규 취농자(농고, 농대 졸업생, 일반사회인)의 취농계획 수립 지원

○ 민간연수교육시설

- Freeter 등을 위한 농업분야 고용취농촉진연수(Challenge! Farm School)를 실시하는 곳(3곳)
- 3~6개월간 합숙교육

○ 취농 준비학교(10개교)

-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일반인들이 주말연수나 e-learning 등을 통해 취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

○ 농업법인

-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신규 취농을 하고자 할 때, 합동설명회(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1년에 6~7회 실시), 단과세대(실버세대) 취농 박람회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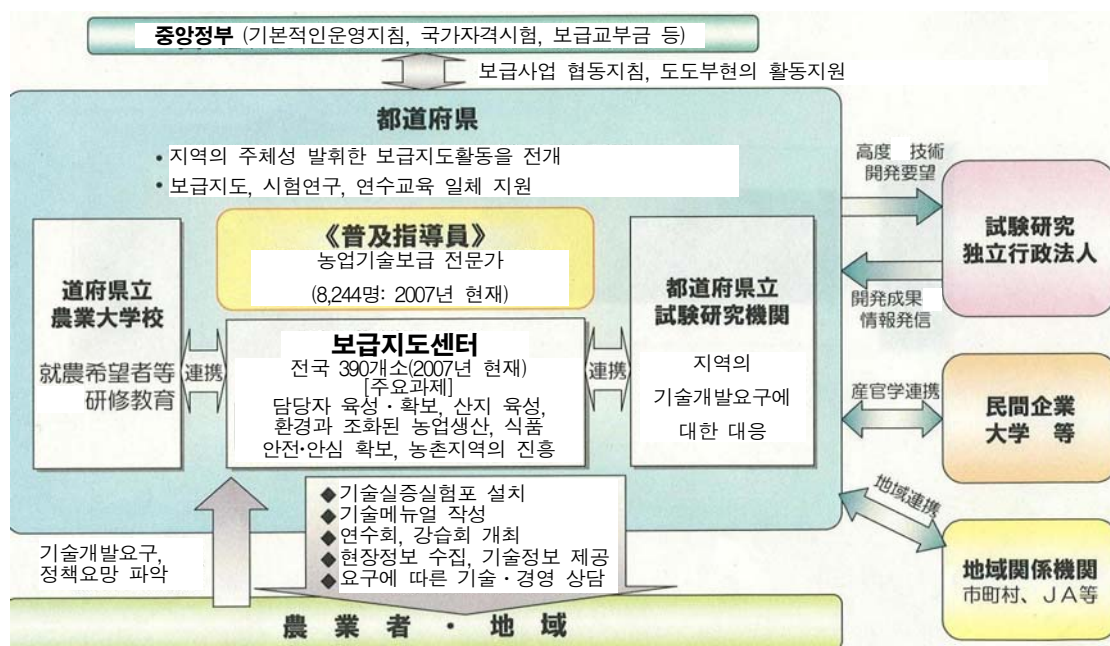
시

- 농업회의소, 농업법인협회가 연계하여 농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사회인들을 위한 1주일~1달 정도의 농업법인 인턴십(체험) 실시
- 6개월 정도의 장기 실천연수(OJT) 제공

3. 협동농업보급사업 현황

3.1. 사업의 기본적 역할

-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발전을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나 농업분야의 기술혁신은 농업인의 자조 노력만으로는 곤란하며, 공적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혁신적 기술을 현장에 보급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협동농업보급사업(이하 ‘보급사업’이라 함)은 1948년 농업개량조장법의 제정에 기초한 제도의 발족 이후, 시험연구기관과 농업인과의 가교 역으로서 시험연구나 일반 행정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농정(農政)의 추진수법으로서 실시되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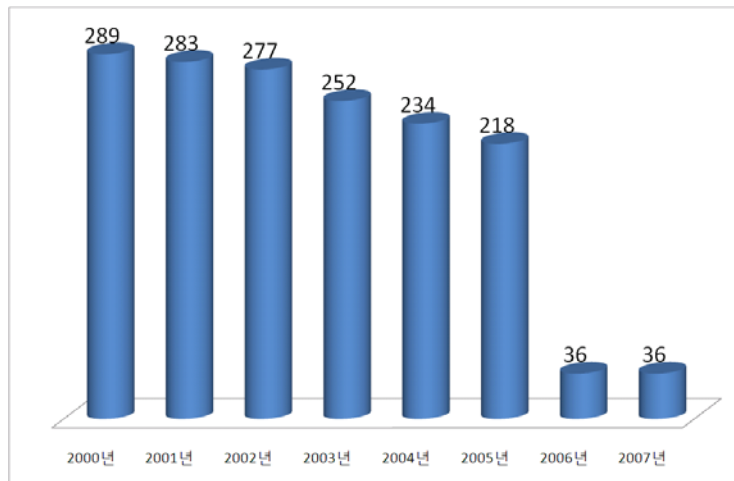
3.2. 보급사업의 기본적 구조

- 보급사업은 농업개량조장법에 기초하여 국가와 도도부현의 협동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 기본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 ① 국가와 도도부현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본방침(운영지침)에 따라 사업 운영
- ② 도도부현에 일정 자격을 갖는 보급지도원을 보급지도센터, 도도부현의 시험연구기관 등에 배치
- ③ 보급사업을 조장하기 위해 국가는 도도부현에 대해 협동농업보급사업교부금(이하 ‘보급교부금’이라 함)을 교부

3.3. 보급사업교부금

- 보급사업에 필요한 기반적인 경비에 관해 국가가 도도부현에게 ‘협동농업 보급사업교부금’을 교부
- 협동농업보급사업교부금은 지방분권이나 삼위일체 개혁의 방향성 하에서 농정(農政)개혁의 실현에 불가결한 보급사업의 기본적 구조를 확보하고, 지역의 자주성, 재량성(裁量性)을 높이기 위해 도도부현에 인건비의 대부분(167억엔)을 세원이양(税源移讓)
- 또한, 세원이양은 보급사업을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양된 것이므로 농림수산성에서는 세원이양 후의 실시상황을 모니터링 조사. 도도부현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재원에 의해 충당되고 있음
- 협동농업보급사업교육금 추이(억엔)



-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

(단위: 억엔)

	2005년	2006년	2007년
협동농업보급사업비	732 (▲5.0%)	693 (▼5.2%)	678 (▼2.2%)
보급교부금	218 (▲6.9%)	36 (▼83.5%)	36 (0.0%)
일반재원	514 (▲4.2%)	657 (▲28.0%)	642 (▼2.3%)

3.4. 보급지도체제의 변이

- 보급직원수는 1964년도의 13,748명을 정점으로 그 후 감소 경향이 있으며, 2007년 초에는 8244명이다.
- ※ 보급직원의 자격은 2004년 이전에는 전문기술원과 개량보급원의 두 종류였으나 2005년의 조장법 개정에 기초하여 2005년도부터 보급지도원으로 일원화되었다.
- 보급지도센터의 경우 농가의 경영경제권의 광역화, 농업의 고도화, 전문화에 대응하여, 시험연구기관과의 일체화나 광역체제로의 이행이 추진되고 있다.
- 보급지도원수, 보급지도센터의 설치수 추이

(단위: 개소, 인)

연도	1970	1985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보급지도 센터수	630	611	604	558	485	447	457	399	390
보급직원수	13,510	11,734	11,229	11,145	10,267	9,332	8,886	8,582	8,244

(주) 2006년 및 2007년도의 경우 연초의 수치이며, 기타 연도는 연말의 설치수임

4. 주요 농업인력 관련 정책과 예산

경영국 보급·여성과
2007년도 개산결정액(2006년도 예산액)
단위: 백만엔

단괴(團塊)세대·청년·여성의 재도전 지원

인생 이모작이나 slow life & job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괴세대³나 청년·여성이 새로운 삶을 찾아 농산어촌에서 재도전하는 것을 지원한다.

1. slow 인생 이모작 재도전 지원 사업 80(0)

‘인생이모작’이나 ‘slow life & job’을 소개하는 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단괴세대나 청년 등이 농산어촌에서 활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농업 재도전 지원 사업 641(0)

단괴세대, 청년 등이 경험이 없어도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상담 단계, 체험·연수 단계, 참가준비 단계, 정착 단계의 각 단계별 세세한 지원을 실시한다.

3. 현 농대(農大)의 재도전 활용 추진 재도전 우선권 500(0)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34,067(40,506) 내의 일부)

도부현 농업대학교 등이 실시하고 있는 재도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농을 향한 실천적인 연수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지원한다.

4. 청년·여성 취농 도전 지원 141(126)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34,067(40,506) 내의 일부)

청년·여성의 신규취농인의 취농정착을 위해 보급지도센터가 읍·리, 농협 등과 연계하여 기술, 지식의 습숙(習熟)도에 따른 밀도 있는 기술·영농지도를 통하여 경영안정 및 취농종속·정착화를 지원한다.

5. 농업·농촌 남녀 공동 참여 도전 총합추진사업 141(126)

농업생산이나 농촌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의 농업경영·지

역사회로의 참여 촉진을 위한 자질 향상이나 여성이 참여하기 쉬운 환경 정비를 진행한다.

6. 인생이모작의 실현을 위하여

타산업 종사자에 의한 농림어업 경영체 발전 지원 연수사업 207(0)
단과세대 등이 갖는 다른 산업에서 익힌 경험·능력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의 경영체에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단과세대 등이 갖는 능력을 농림어업의 경영 발전에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새로운 발상에 따른 담당자 지원책 창설

농정의 발본(拔本)적 개혁에 있어서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담당자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집중적·중점적으로 실시한다.

1. 담당자 활동 지원 사업 중 새로운 인재 육성·확보 활동

3,500 중 일부(0)

지역에서 실시하는 취농 희망자에 대한 취농상담, 인정농업인이나 기업(起業)을 지향하는 여성, 담당자 지원을 지원하는 고령자에 대한 연수나 정보제공을 지원한다.

2. 담당자 활동 지원 사업 중 집중적 기술·영농 지원

3,500 중 일부(0)

담당자 육성·확보의 가속화를 꾀하기 위해 보급조직이 세세한 영농분석이나 선진기술, 신규작물의 도입 등 기술·영농 지원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3. 집락영농 긴급 육성 지원 루트 개발 사업 47(56)

보급조직이나 농협 등의 집락영농 육성 활동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집락영농 긴급 육성 지원 루트’를 개발하여 이를 폭넓게 제공하고, 지원 루트를 활용한 육성 활동을 추진하여 집락영농조직을 신속하게 육성한다.

협동농업보급사업

담당자에 대한 총합적인 기술·경영지원을 비롯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식(食)의 안전 확보, 환경과 조화된 농업생산의 추진 등 중요 시책의

추진을 위해 보급사업의 중점화·고도화를 꾀하고, 농업개량자금을 통한 효과적 지원을 실시한다.

1. 협동농업보급사업교부금 3,597(3,597)

2. 보급사업 관계 신규·확충 등 주요 사업 예산

(1) 중점시책의 추진

① 담당자 활동 지원 사업 중 집중적인 기술·영농 지원
3,500 중 일부(0)

② 집락 영농 긴급 육성 지원 루트 개발 사업 47(56)

③ 청년·여성 취농 도전 지원
금액은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34,067(40,506)의 일부

④ 신기술 활용 우수 농지 이용 고도화 지원
금액은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34,067(40,506)의 일부
우수 농지 이용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보급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

⑤ 신기술 활용 농지 이용 고도화 특별 사업 23(28)
유휴농지의 해소나 신기술을 활용한 농지의 이용 고도화에 관한 보급조직의 대처를 지원한다.

(2) 보급사업의 고도화

① 산학관 연계 경영 혁신 기술 보급 강화 촉진 사업 230(0)
혁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담당자의 경영발전을 꾀하기 위해 보급조직을 중심으로 한 산학관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 현장에서의 신기술의 확립에서부터 총합적인 기술 보급 지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처를 지원한다.

② 지적 재산권의 개발 보급 및 체제 정비 위탁 사업 14(0)
지역에서의 지적 재산 개념의 개발 보급이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급지도원에게 지적 재산권이나 활용에 관한 전문 연수를 실시하고, 지적 재

산권에 관한 보급 지도 활동의 지원 창구를 설치한다.

(3) 농업 개량 자금의 대부 조건 확충 331(1,018)

- 지방공공단체의 보조사업 관련 보조 잔액분을 대부 대상으로 추가

담당자 육성·확보를 한 층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 보조사업 관련 보조 잔액을 본 자금의 대부 대상으로 추가하여 보급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시스템을 지원한다.